

한경훈 / 4월 / 기출GS / 1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17735	16.5	11	13.5	9.5	50.5	1	9.09%	5	11
517297	16	10.5	13.5	9.5	49.5	2	18.18%	6	
517494	14.5	10.5	14	9.5	48.5	3	27.27%	5	
519433	18.5	13	14	0	45.5	4	36.36%	6	
515018	15.5	8.5	10.5	8	42.5	5	45.45%	4	
519169	12	12	9.5	7.5	41	6	54.55%	5	
517304	14	10.5	9.5	5	39	7	63.64%	5	
517527	10.5	10	10.5	7	38	8	72.73%	5	
519409	13.5	10.5	8	6	38	8	72.73%	5	
517214	17.5	10.5	8	0	36	10	90.91%	6	
520852	15.5	8.5	4.5	6.5	35	11	100.00%	5	

한경훈/4월/기출GS/1회/1번	채점자
	이흥기
<p>1. 문제 1</p> <p>(1) 설문 1</p> <p>아메리카 유니버시티 전합 판례를 바탕으로 한 문제입니다.</p> <p>별개의견까지 암기해야하나 싶지만 배점이 크게 다시 나올 경우도 대비하자는 생각에 제 1, 2별개의견과 검토 정도 암기를 했습니다.</p> <p>물론 별개의견과 검토보다는 사안포섭이 중요하기에 사안포섭 부분을 먼저 꼼꼼히 공부하신 후에 별개의견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2) 설문 2</p> <p>메인 논점은 영문과 단순음역의 결합상표 중 일부사용에 관한 부분이나 선결적으로 등록상표의 식별력 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논점이기도 하고 불사용 취소심판에 걸린 내용이 많아서 누락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체크해두고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p> <p>(3) 설문 3</p> <p>권범심의 판단대상인 상표적 사용, 상표 상품 유사여부, 효력제한 여부에 대해 배점에 맞게 포섭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권범심의 결과에 대해 논하라고 했기에 짧게나마 판단 대상들을 포섭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p> <p>2. 총평</p> <p>아메리카 유니버시티 판례도 중요하지만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 또는 최신 중요판례들이 더 중요하기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한경훈/4월/기출GS/1회/2번	채점자
	이흥기
<p>1. 문제 2</p> <p>(1) 설문 1</p> <p>논점도 많고 배점도 큰 문제였습니다.</p> <p>이런 문제의 경우 하나의 논점에 대해 장대하게 서술하고 나머지 논점에 대해 짧게 치고 넘어가기 보단 각각의 논점에 필요한 판례와 사안포섭을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p> <p>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논점을 추출하고 각 논점마다 얼마의 배점을 할애할 것인지 미리 정한 이후에 답안을 작성해야 답안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2) 설문 2</p> <p>배점에 비해 써야 할 내용이 많은 문제였습니다.</p> <p>이 경우 과감하게 판례들은 생략하고 34조1항20호의 각 요건들에 대해 사안포섭만 하여도 적절히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 판례를 써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유동적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강조하지만, 상표는 사안포섭이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2. 총평</p> <p>설문 1과 같이 논점이 많아지면 답안이 어수선해지기 쉽습니다.</p> <p>이런 경우 큰 목차를 문제에서 준 용어를 통해 해결하고 그 아래 소목차에 논점들을 배치하여 답안을 정리하는 게 편리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p> <p>해설지를 보고 공부하실 때 답이 맞고 틀리고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경훈 변리사님이 왜 목차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는지, 답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면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한경훈/4월/기출GS/1회/3번	채점자
	이흥기
<p>1. 문제 3</p> <p>(1) 설문 1</p> <p>문제의 6번째 줄에 있는 ‘지정서비스와 동일, 유사한~’ 에서 지정서비스라는 단어를 놓치신 분들이 많습니다.</p> <p>물론, 저도 기출을 여러 번 풀면서도 계속 놓치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 지정서비스라는 단어가 익숙하다보니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p> <p>하지만 지정서비스를 놓치게 되면 배점이 남게 되고 그 결과 상표의 유사판단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답안지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p> <p>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p> <p>(2) 설문 2</p> <p>‘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 는 문구를 보고 119조1항1호의 검토를 줄처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p> <p>저도 해석하기에 따라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119조1항2호만 서술하기에는 배점의 양이 많아서, 가정적으로 1호를 검토해주는 것이 방어적이라고 생각합니다.</p> <p>같은 이유로 119조1항3호의 경우에도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조금이나마 사안포섭을 하는 것이 배점 상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p> <p>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데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p>	

(3) 설문 3

대상상표의 적격성을 빠뜨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설문 1과 비슷하게 같은 함정에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총평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함정을 파는 방법은 반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해나간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총평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한경훈/4월/기출GS/1회/4번	채점자
	이흥기
<p>1. 문제 4</p> <p>(1) 설문 1</p> <p>소송의 결과에 대해 논하라고 했기에 결론에서 나오는 결과는 ‘~판결’ 이 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꼼꼼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p> <p>전용사용권 설정한 경우 정액과 정률로 case 분류한 답안이 있었는데 좋은 사안포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메인 논점인 ‘등록상표 불사용 시 손해발생 인정가부’에 대한 포섭이 필요합니다.</p> <p>(2) 설문 2</p> <p>판례의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은 답안이 종종 보였습니다. 판례를 제대로 암기하지 않으면 판례의 키워드를 사안포섭에 현출할 수 없어 좋은 답안이 되기 어렵습니다.</p> <p>판례암기는 2차 시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자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기 에 꾸준히 공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p> <p>(3) 설문 3</p> <p>배점도 작고 물어보는 것이 명확하여 대부분의 답안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p> <p>2. 총평</p> <p>1회차에 어떤 말을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오래 했는데 기출문제를 공부하여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p> <p>저는 개인적으로 기출을 공부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는데 기출문제는 결코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격하는 해에 특허와 상표는 기출을 실전 GS만큼 중요하게 공부했는데 실전GS와 기출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p>	

실전GS 공부는 최신 중요 논점을 체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기출공부는 실제 시험장에서 나올 문제의 형식과 유사한 형식을 미리 느껴보는 것 그리고 함정에 미리 빠져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기출에서 함정을 파는 방법은 반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가 잘 당하는 함정을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모아서 한번 쪽 읽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시험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기출문제를 통해 미리 경험하는 것이 기출공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도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함정에 당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4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자주 당했던 함정과 그것을 포스트잇으로 정리해놓은 예시입니다.

- ① 사식취 문제는 본질적 식별력을 선결검토하자.
- ② 무효심판 문제는 제척기간을 선결검토하자.
- ③ 불사용 취소심판 문제는 등록상표 식별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자주 빠트리므로 선결검토하자.
- ④ 상품 2개 이상 또는 상품 서비스 둘 다 나오는 경우 상품 별로 case 분류 해야 할 수 있다.

C 문제 17

I. 설문(1)의 해결 7.5

1. 문제점

1.의 본질적 식별력 즉 25, 2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주장과 관련하여 33(1)4호의 무효심판의 결과에 대해 알아 본다

2. 1. 등록상표에 33(1)4호 무효사유 중 1-2조

(1) 1.의 취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현저성으로 말미암아 식별력과 독점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제40)

(2) 판단 방법 - 제40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설문조사, 교과서, 신문기사 등 주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실들을 고려하여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기술적 표장과 결함판정 여부 제40

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함의 없는 사실만으로 33(1)4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기술적 표장과 결함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의 희미를 띠거나 새로운 식별력이나 새로운
 고안성을 형성한 경우에는 33(1)4조의 규정상
 배제되지 등록받을 수 있다.

(3) 이러한 경우는 다중다양하므로 해당 여부를
 구체적 기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소결

1) 변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
 "의정부" ~~대백교~~는 "경기도"에 위치한 시의
 명칭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2) 새로운 식별력 형성 여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의정부"가 "대백교"라는
 고목업에 관한 기술적 용어와 결합하여
 # 출원 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런
 대백교 연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대백교가 되었는지 새로운 식별력
 형성되었다

3) 사안

그러나 # 등록상호는 '고목업'에 대해서는
 33(1)4의 무효사유 없고 '상업디자인업'의
 '출판물'에 관해서는 그 자체로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어 33(1)4 무효사유 없다.

3. ㄷ 등극상호 등록사유 중부

ㄷ 등극상호중 "인터넷 교육강좌업"에 대해
서는 상호등극출원할 때에 이미 국내에서
특성인의 상호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33(1)4조이외의 33(2)을 적용하면 등록사유
"없어지고" "교육연속성"에 대해서는 무효사
유가 존재한다

4. 결론

(1) ㄱ 등극상호

ㄱ 등극상호는 33(1)4조의 무효사유가 없어
기각심결 날 것이다

(2) ㄷ 등극상호

ㄷ이 33(2) "인터넷 교육 강좌업"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적용한다면
"인터넷 교육 강좌업"에 대해 기각심결
날 것이다.

ㄷ. 설문(2)의 개질 6

1. 문제점

ㄷ은 결상상호중 일부를 사용하는 등극
상호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2. 119(1)3조의 취지

상표권과 등이 취소심판 청구권 권 3년
 이내 불사용하면 취소된다. 불사용을 거래
 하기 위함이다.

3. 商標權의 타당성 검토 - 등록상표 사용권

(1) 등록상표 사용권이 판단 방법 부호

1) 등록상표의 의미

등록상표 사용이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품
 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며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 그대로 표
 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결합상표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

영문과 한글 음력으로 된 결합상표 중
 일부분만 사용하였어도 영문으로 인식되는 관
 관외에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
 지 않고 결합상표 중 일부를 생략하여도
동일하게 인식되는만 등록상표 사용이다

(2) 조각

한글 영문과 한글음역이 결합된 등록상
 표 중 일부분 한글 음역으로 된 '의정부
 지리대 갈리지' "부분만 사용하였어도 상표

모든 의정부 디지털 재학이라는 관념이 영
성되고 프링이 '의정부 디지털 광리기로
프링 되는 바 등록상품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등록상품 사용이라는 항변 타당하다.

4. 식별력 없이는 사정 고려가 불가

① ~~한~~ 등록상품이 ^{대부분} 식별력 없이는 사정
은 등록상품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
유가 아니라고 본다

② ~~한~~ 등록상품은 의정부 서비스와의 유사성
에서 연관된 귀리적 연결 정도는 기초적
판정으로 식별력이 없어도 이러한 사
정은 등록상품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
유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할 수 있다

5. 결론

~~한~~의 등록상품 사용 주장은, 식별력 없어도 등
국 상품 사용이라는 주장은 모두 타당하고 정의
114조(1)과 취지상한 경우는 기각시킬 수
것이다.

의 결론(3)의 해설 3

1. 상품적 사용 여부

정문 "문리언을 이용한 언어 교육용"

이 대가여 출제표시로서 "의정후 디지털 콘텐츠 라이선스"라는 사용하여 상품권 사용이다.

2. 보호범위 측면의 여러-소극

과와 5의 상품의 모든 각각 "UDCWB"와 "UDCWB"로 외관·호칭이 달라 출제표시호출호출을 염려가 없어 상품이 본 라인을 이 용한 언어교육용으로 같더라도 상품호가 비슷해서 10 승급상품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결론

본 결론상품권 범위의 "의정후 디지털 콘텐츠 라이선스"에 대한 194의 로열 제본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보호범위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10의 상품권 권리범위 밖인 심판은 기각시킬 만 것입니다.

그런데 27

1. 설문(1)의 해결 9

1. 문제점

사용권자가 등록상품 사용권 경우 권리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여

제1항 심판의 결과에 대해 논해 본다.

2.

적법성

제1항 1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품을 사

용케온라로 1의 등록상표 소멸에 직접적

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34(1)

12조는 제1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심판

적법하다

3.

34(1) 12조 의의 취지

(1) 의의 취지

수모라를 기반으로 명제가 있는 상품은 등

록 받을 수 없다. 출려본등으로 인한 수모

과 기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적용 범위 - 제1항

(1) 선사용상품가 특정의 출려로 알려져 있어

야 하고 (2) 상품이 동일· 유사하여야 하고

(3) 상품이 동일· 유사 정제적 전면 관계

에 있어야 한다

4.

이 주장 - 선사용상품 권리라는 주장

(1) 제1항 - 선사용상품 권리와 특정 방법

(1) 34(1) 12조 규정이 따라 등록받을 수 없

는 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품의 권리

과는 출려인 이외에 타인이 있어야 한다.

(2) 상품허락제약을 중재의 상품을 사용하
 는자가 따로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
 품 사용을 중재하거나 상품의 성질·품질은
 관리해 본자가 따로 없다면 그자로
 선사용물과 권리로 보아야 한다' 실제 상품
 을 사용한 자를 권리로 볼 것은 아니다.
 (2)소점

따라서 2가 상품허락제약을 체결하고 2은
 이 관리 하는 물건인데 2가 등록상
 품을 사용해 본쪽으로 보아 이 2의 등록
 상품사용을 중재하고 있으므로 2가인 " SETTEP" 상품의 권리와는 무관할 수
 있다.

5. 출처표 등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주의

(1) 상품이 'SETTEP'로 등록되고 상품 이
 '테니스'와 '테니스'로 판매되나 수
 호자 등이 동일하여 정제적 관련관 제

인사 (3) 2 등 2가 결정된 2024.1.18
 이전인 2023.6월 정 2가 등록상의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었기에 2 상품상의
관계에서 출처표 등 표시가 없는 경우
 할 수 있다.

6. 결론

그러라서 신사용상표 권리자라는 주장, 출원
활동 명어가 급대는 주장들을 하고도 34(1)
12조의 묵요성항은 "인용성결" 난 것이다.

프. 결론 (2)의 배열 2

1. 34(1) 2020의 의 취지

신뢰관계를 러버리고 라인 상표와 동일 - 유사 상
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없다. 신의성실 원
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2. 인용사항 1 - 신뢰관계 주장

위해는 과외 동일 관계 있었든 과외 신뢰
관계 인정받아 과외와 과외 동일관계/
기 있었든 기 이 기 사용 또는 사용
금지 중인 상표임을 밝히면서 출원하여 신
의 ~~성실~~ 위반된 출원임을 주장 인용
할 수 있다

3. 상표 동일 주장 - 인용사항 2

기 이 기의 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
에 반하여 등록된 상표인 "SETERA"
를 출원하였다고 주장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37

1. 상품 (1)의 개질 **3.5**

문제 2

상품과 서비스별로 유사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 심결의 결과에 대해 알아 본다

2. 격형성

본 문 2과 동종 방과로 비교관계 있고
제 격기간 지나리 남아 심 판 격방하다.

3. 2 등록상표 서비스들에 대한 무로심판 결과

(1) 유사 판단 방법 - ~~제~~

(1) 상품의 유사여부 수호자의 의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외관·표지·관념을 고려하여
둘러 볼 등 둘러싼 여려가 있을지로 판단하게
비고 하고 ~~제~~ 격기간 관련 관철을 위하여 모두
관찰을 할 수 있다

(2) 모하 결정 소극적 기준 - ~~제~~

상품의 구성부분이 모하가 될 수 있는 식별
이 없을지 판단할 때에는 지평상표와
동일·제4권 상품에 구성부분을 포함된 상품
가 다수 등록되어있는지 상품권과의식, 출원일
의 수 들을 고려하여 통관적 식별력, 등록권

성이 없으므로 고려해주시고 한다.

(2) 소결

그의 등록상품의 지명서비스와 관련하여
해서는 그 등록상품 출원되기 전에 등록
유사한 서비스들이 '낙타 모양을 포함하는 부
속이 상품권과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는데
해당 등록상품 중 낙타 모양은 식별적에 없나
모양이 아니므로 그 상품과 비교하면 출원
등록상품 열려가 없어 비유사한바 개량
지명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각심결 내린다.

4. 그 등록상품 중 '귀족과 액세서리'에 대한 관련
귀족과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낙타 모양이
식별적 있어 모호할 수 있어 그 상품 중
모호한 낙타모양과 외관이 유사하여 상품이
유사하므로 '귀족과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단독심결 내린다.

5. 결론(기)의 래플 6

1. 불개방

그의 등록상품 사용 제재와 관련하여
즉각적 속 있는 취소 사유인 1192제1, 2, 3
에 대해 발아한 그와 같이 래플
에 대한 권리 1202 제1항 2호에 대해

알아 준다.

2. 취소심판에서 무효될 수 있는 취소사유

(1) 등극상품과 동일 상품 사용의 경우

이 경우에는 119조(1) 1호와 3호는 문제되지 않고 사용권과 ㄱ의 등극상품과 동일한 상품 사용하여 출제된 등 2호 명제가 생긴 경우 119조(1) 2호가 문제될 수 없다

(2) 유사 상품 사용의 경우

등극상품과 유사한 상품들 사용난 경우에는 119조(1) 1, 2, 3호 모두 문제될 수 있다

(3) 비유사 상품 사용의 경우

이 경우에는 119조(1) 1, 2호는 문제되지 않고 119조(1) 3호만 적용될 수 있다
(4) 오진

무은 상품 등극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甲의 사용으로 인해 119조(1) 1, 3호는 문제되지 않고 2호 등극상품권과 ㄱ의 등극상품 사용에 해당하리라 119조(1) 2호가 문제될 수 없어 乙은 甲의 등극상품에 대해 乙권을 반증할 수 없다. 119조(1) 2호 취소사유 무효할 수 없다.

3. 甲의 2에 대한 법적 대응

(1) 등록에 대한 조치

상표문(1)에서 살펴보면 甲과 乙이 乙 등록
상표문 "귀공복귀 백서서리"에 관해서 乙
상표가 유사하여 34(1)조의 최소심판 청
구 할 수 있고 乙의 등록상표 혼용, 부정
사용사실이 인정되면 최소심판은 청구 불가
하다

(2) 사용에 대한 조치 - 107, 109, 113

"2)경서비드"에 대한 사용은 상표가 비슷하
하여 사용에 대한 침해조치를 취할 수
없고 "2)경서비드"에 대해서만 유사상표
사용으로 인해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 청구,
손배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적 조치, 권리
의 행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등록
상표 소멸의 효력 무한(무한)하게 할 수
있다.

4. 乙에 대한 법적 대응

甲이 甲 등록상표 부당사용한다면 120조
최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에 대한
조치는 실사청와으로 불가 하다.

상표문(3)의 해결 **4**

1. 제1도사유 권호-1142(11)2

(1) 제1도사유 - 복수의 유사상품 사용

~~등록상~~ 복수의 유사상품을 사용하다가
이스하나의 상품을 등록받은 후에 유사
상품을 계속사용 하는 경우에 등록상품을 그
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거듭다면 이는 등록상품과 유사한 상품
의 사용이다

(2) 1도경

상품권과 같이 등록상품 이전받고 복수의
유사상품을 계속 사용하거나 근접의 관계
에서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거듭
다면 유사상품의 사용으로 본 상품이 복수의
의 혼란을 받게됨에 따라 근접의 이유
로 114(1)2의 최소 심판은 항구할 수
있다

2. 심판의 결과에 따른 효과

(1) 인용심판 복판의 경우

① 상품권은 광범심판복판 될 때 여러 차례로
소멸한다

② 34(1)2의 인용상품권과의 외위가 소멸
2

된다.

(3) 343이 적용되어 동일·특사범위의 상품을
재출원할 수 없게 된다.

(2) 기각 심결 확정 후 150일

내사부재리가 적용되어 누구든지 119조(1)

호를 이유로 같은 급으로 동일·특사 심판은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끝

수행했으니

문제 4)

I. 심문(1)의 해결 4.5

1. 문제점

甲의 상품 사용으로 인해 甲과의 관계
에서 침해가 인정되지만 甲의 등록상품
불사용으로 인해 소용은 기각판결 내습기 어려
알아 본다

2. 甲의 침해여부 - 적극

(1) 침해요건 검토 - 107, 108(1)

甲의 등록된 상품권 계속 중에 乙이
코렐의 상품을 상품권으로 사용하고 있고

甲 출원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상당
한 권원 없고 오직 甲의 사용 없이 권원
남용사유도 없다는 보호범위 확대를 기

물려진다

(2) 보호영역 극복

兩의 사용상품을 그림 모양은 외형상 동일
나타내는 그림으로 식별력이 낮아 분과부분
인 'KODELLA'가 모두인 이는 甲 등록
상품과 겹쳐서 유사한 상품을 같은 외형
상품인 사용하여 甲 등록상호 보호영역에 속
한다

(3) 손해

兩 상품 사용은 甲 등록상품에 대해 침해
행위 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해준다.
3. 손해 발생 여부 - 소극

(1) 손해 발생 주장 증명

11조 (4)은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은 판매자
측기 위한 것으로 침해만으로 손해 발생을 추
정하거나 조손해가 있음에도 손해 발생행위를
인정하고도 손해 규정이 아니므로 손해에 관
한 증명책임의 거연성을 주장 증명해달라 한
다.

(2) 손해 발생액 산정

상품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사용침해의 사
유만으로 중상 4배된 손해의 인정받지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1주]



알고 알고 상품권과 사용을 하는 등 손해발생이
인정되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
로 판매자를 비롯한 사주를 확장·증명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결론

무엇 국내에서는 등록상품을 사용하러 알고
있어 손해가 발생하러 알고 알고 2의 사용이
있어하러라도 이온 무의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전국 무의 손해가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 판결 날 것이다.

II. 식음(2)의 해결 2.5

1. 21정상품 사용의 의미- ~~주제~~

21정상품과 21대 통념상 관련 있는 상품에 상품
을 표시하러 알고 알고 이온 등록상품을 사용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검토

등록상품 사용은 21정상품에 비롯하러 알고 알고
것이므로 ~~주제~~ 다당이다

3. 결론

2은 권용사용권자로 무의 등록상품을 2선의 다른
상품과 함께 나열하러 사용하러 알고 알고

지적상품인 "팔복, 수려화, 강정"에 관한 권리는
 말 속 있는 물건을 얻어 가지 않는다는 등
 등록상품인 "지적상품"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이
 등록상품 사용으로 볼 수 있다.

III. 선행(3)의 해결 2.5

1. 제3자의 수입행위 관련 문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직접 등록상품을 사용한다
 없다면 제3자가 등록상품을 표시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켜 소비자들에게
 상표권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 인식될 수 있게 하였다면 이는 상
 표권자가 등록상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검토

소비자의 인식에 기준으로 하여 등록상품 사용
 여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수입업과 같이 제3의 등록상품과 부합된 상품
 '강정'을 유통에서 수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제3의 상표권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이라 인식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제3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품을 직접 사용

라21 양양머라도 등록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관공)

-이바이어백- 수권하셨습니다

[문제 1]

I. 설문 (1) 7.5

1. 무효판의 의미 취지 - 法 제 117조

권리의 발생적 해탈수단으로 이해관계인은 행정 무효사유를 들어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적격

丁은 학교법인으로서 등록업체인으로서, 이해관계인이므로 참인 적격이 인정되어 심판 청구는 # 적법하다.

3. 法 제 33조 항 4호 의미 취지

현재와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그 주지성으로 인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등록시키지 않거나 등록을 불허한다.

4. 甲의 주장

(1) 法 제 33조 항 4호 적용방위 제191

본 조의 거절사유는 식별력이 없는 다른 표상이 현재와 지리적 명칭에 결합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다른 식별력 없는 부분 포함 시 적용 제191

다른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조합적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기거나 식별력이 생긴다면 본 조의 거절사유는 없다.

(3) 판단기준 제191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식별력이 생기는 경우는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한다.



(2) 사안

'의정부대학교'는 ①의 출원 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대학교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대학교가 될 바, ①의정부'의 현재한 지리적 명칭과 ①대학교의 식별력 있는 표상이 결합하여 ②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는 대학교라는 인상이 생긴 바, 본 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따라서 '표지'·'상징디자인'·'주요' 모두에 대하여 거절여유 없다.

b. Z의 주장

(1) 문제점

'의정부교육대학교'는 설립한지 6년정도여서 학교 명칭 자체만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아 '출 제 33조 1항 4호'이므로, '출 제 33조 2항'으로 등록 가능한지 본다.

(2) 사용 상표를 사용 상표에 출원 여부

Z은 '의정부교육대학교'를 '인터넷교육강좌'에 대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사안

① Z은 출원 전부터 '의정부교육대학교'를 사용한 결과 '인터넷교육강좌'에 대하여 국내에서 Z의 서비스에 관한 출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되기에 이르렀다. ②이는 '인터넷교육강좌'에 출원한 바 ③따라서 '인터넷교육강좌'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무효심판은
일부 기각심판 여상된다.

6. 심판결과

①甲의 상표에 대하여 전부기각. ②乙의 상표에 대하여는 '인리넷강라임'란 개념상표이 여상된다.

II 선택(2) 5

1. 불사용 취소심판 의의·취지·法 제119조/항3단

불사용 제재 및 등록상표 사용 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등록상표 불사용 시 취소유지 규정하였다.

2. 일부 청구 기각

일부 상표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고, 유사상표는
함께 청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심판 청구를 적법하다.

3. 상표권자 사용 여부

상표권자 丙이 직접 사용하였다.

4. '등록상표' 사용 여부

(1) 영문자 한글영역 결합상표 중 일부생략 제1항

영문자만 한글영역 결합상표에서 일부를 생략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생략에도 동일하게 형성되고
결합 시의 외관 등에 새로운 단견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보아야
한다.

(2)사안

특의 등록상표는 명문사 'Uijeongbu Digital College'에
그 한글 음역인 '이정북디지털칼리지'가 등록한 상표이다.

특은 그 중 일부인 '이정북디지털칼리지'만 사용하였지만
증원하게 형성되고 그 결과로 새로운 상표 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5. '사용' 여부

(1)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특 제 119조 항3에서 '사용'이란, 특 제 22조항1에
적용의 행위를 말한다.

(2)사안

특은 '이정북디지털칼리지'를 광고자료로서 표시하였는데
이는 '온라인을 이용한 영어 교육법'에 대한 광고행위
를 한 것으로서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다.

6. 심판의 불가

상표권자 특은 ②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인
'이정북디지털칼리지'를 ③ 지점서비스인 '온라인을 이용한
영어 교육법'에 대하여 ④ 심판청구일 전 5년 이내
'광고'를 한 바, 사용실적이 인정되므로 기각심판이 예상된다.

II. 실문(3) 3.5

1. 저작자 권리보호기간의 의미. 출처 - 法 제 121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보호기간의 뜻에 관한 판단을 받는 제도이다.

2. 상표 유사 여부

(1) 표부 추출 : 'UDG', 'UDCWB'

의정부 디지털칼리지는 지정상표라니 관계에서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는 부분이고, 'UDG', 'UDCWB'가 식별력이 더 강하므로 독립하여 출처표시가능하는 표이다.

(2) 대비

각 상표의 표부의 'UDG'와 'UDCWB'는 일단, 호칭, 관습이 상이하여 출처혼동 염려가 없는 비유사상표이다.

3. 효과 제한 여부

지정서비스에 대한 상표 표시 등으로 식별력이 없는 '의정부 디지털 칼리지'에 대하여는 상표권 효력이 제한된다.

4. 심판 결과 예상

① 양 상표는 비유사하므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기각심결이 예상된다.

[문제 2]

I. 설문(1) 8.5

1. 무효심판 이유. 취지 - 법 제117조

분쟁의 발생적 해결수단이 존재하는 상표등록을 소멸시킬 수 있다.

2. 법 제143조 항 12에 규정된 이유. 취지

선사용상표 사용자 보호가 아니라 출처 모인 혼란으로 인한 수위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3.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취지

① 적어도 국내 특정인의 출처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② 상표 상품·
등을 동일 유사하여야 한다.

4. 특정인의 출처로서 인식 관련 취지

(1) 판단시기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권리자 판단기준

선사용상표를 출원한 권리의 내용,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품질을 관리하여
온 자를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

(3) 사용권자가 사용한 경우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한 경우를 물론,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사용하였거나, 이를 무관한 제3자
가 사용하여 인식을 취득한 경우라도 상관없다.

(4) ~~신사용상품~~가 ~~지명성~~ 취득한 경우 ~~비유사~~

~~신사용상품~~가 ~~지명성~~

(4) 비유사 상품으로 청목리기 위한 요건

신사용상품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못지 않은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의하여 볼 때, 신사용상품 사용자에게 인하여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5. 무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

(1) 시기 관련

특권상품의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SECRET'가 국내에 특정인이 출처로서 인식을 주장한다.

(2) 권리자

무의 등록기준에 따라 지 사용한 바, 무이 권리자이? 아무런 법적, 경제적 관계가 없는 곳에 대하여 타인이

(3) 사용권자 사용 무방

사용권 허락받은 지 사용하였더라도 인식을 취득과 관하여 문제가 없다.

(4) 비유사 상품으로 지명성 관련

'제니스북'과 '제니스화'는 유사한 상품인 아티스, 패션 상품 등에 관한 판매 장이다. 수요자층이 동일하여 경제적 관련관계가 있어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못지 않은 정도로 신사용상품 사용자에게 인하여 사용

권다고 보완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

6. 심판결과 여사

따라서, 본 건 전 족 중족하므로 인용심판이 예상된다.

II. 질문(2) 2

1. 특 제 34조 한 20년 이내 권리

신약상, 특징인과 권리 관계에 있던 자가 동일·유사한 상표
상표 출원 시 등록을 거절한다.

2. 특이 입증할 사항

(1) 신약관계

특은 자신과 특이 관계에 동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동일하지 않은 것

특이 자신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한다.

(3) 상표 동일 주장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SERETY'를 출원했음을 주장한다.

(4) 상표 유사 주장

자신의 등록상표인 '테니스복'과 '구주'가 유사한 상표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수감되었습시다.

[문제 3]

I. 설문 (1) 3

1. 무효심판 의의. 취지 - 법 제 117조

본쟁의 발원적 해플수단으로, 이해관계인은 무효사유 있는 상표등록을 소멸시킬 수 있다.

2. 법 제 34조 항 7호 의의. 취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품을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하면 수습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불허한다.

3. 상표유사 여부

(1) 다수 등록 사정 취지

본의 전제로서 식별력이 있거나 미약한지를 판단할 때 다수 등록이나 출원공고된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상품의 수, 상품권자의 수, 본질적인 식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의 전제로서 식별력이 있거나 미약한지 판단한다.

(2) 외부 충돌

① 낙타 도형은 2의 등록상표 출원 전 유사한 도형은 또한 하는 다수의 상품이 상품권자를 달리하여 등록된 바, 식별력이 있거나 미약하다. ② 무등록상표인 'DIA SKY' 나 등록상표인 'BLUE' 또는 5각형 도형도 상표가 이 있거나 미약하여 외부가 될 수 없으므로 ③ 이 경우 취지에 따라 전체관찰한다.

(가) 대비

전체 관찰하면 미관이나 관청 관행이 상이하여 출제
흔들 여지 없는 바류사 상표이다.

4. 결과

양 상표 바류사하여 본 호 거절이유 없으므로, 기각심결이
예상된다.

II. 설문(2) 6.5

1. 법 제 119조 항 1은 취지선포

(1)의의. 취지

상표권자가 부정사용으로 인해 출제흔들 연려 있는 경우, 취소사유
이다. 수의자 반대. 상표권자 반대 중을 위함이다.

(2)사안

① 상표권자 甲이 ② 등록상표:아 지정상표 및 지정서비스
내의 유사범위에서 생략하여 ③ 2의 등록상표와 ④
출제오인 혼동 연려가 있는 경우라면 본 호의 취지선포
에 해당한다.

2. 법 제 119조 항 2는 취지선포

(1)의의. 취지

사용권자가 부정사용으로 인해 출제흔들 연려 있는 경우
취소사유이다. 수의자 반대, 상표권자 반대에 나아가
간접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2)사안

①사용허락을 받은 것은 통상사용권자이고, ② 각이 등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의 유사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③ 수당자에게 출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연려
 가 있다면 본 항의 취지사유에 해당한다.

3. 법 제 119조항 3호 취지판

①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 불사용 시 취소가능하나 ② 무의
 등록상표의 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바 본 항의
 취지사유 존재하지 않는다.

4. 법 제 119조항 6호 취지판

타인의 성가름을 모방하여 출원·등록한 것이라면
 본 항에 해당한다.

5. 무의 2에 대한 조치

(1) 무효심판 청구

1) 법 제 33조항 1항 ^{7호} ~~7호~~ 등거절사유

乙 등록상표는 식별력 없는 낙타모형과 오각형 도형에
 'BLUE'가 결합되어 있는데, 'BLUE'도 절대적
 성질 표시 표장이므로, 상표 전체로서 식별력이 없음은
 주장하여 볼 수 있다.

2) 소멸 소멸

위와 같은 무효사유를 주장하여 乙 등록상표를 소멸시킬
 수 있다.



(2) 포기, 양도 권리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포기, 양도 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甲의 丙에 대한 권리

(1) 사용권 계약 해지

丙이 甲 증류상품을 부정 사용하거나, 사용권 범위를 넘어서 사용을 하는 등의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2) 사용권 취소 심판 청구 - 法 제120조

丙이 경고에도 부정사용한다면 사용권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볼 수 있다.

(3) 丙의 사용 통제

갑측의무로서 주의·경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제174) 丙이 사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갑측한다.

II. 설문(가) 4

1. 출전

① 실정증류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하여 法 제 119조 1항 3호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유사상품 분리의전, 상품 분리의전 사정이 없으므로 法 제 119조 1항 4호, 5호 해당한다.

③ 상품권자 丙의 사용태양이 문제되는 바, 法 제 119조 1항 1호 취소사유를 검토한다.



2. 법 제 1192항 1호 취사유 결부

(1) 대상적격

그의 등록상표가 대상상표이다.

(2) 유사범위 내의 사용 여부

1) 일부 등록 후 미등록 상표 사용 제191

여러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일부 등록 후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보다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출처 혼동 염려가 증가하였다면 유사범위 사용이다.

2) 사안

그의 상표권 이전 되기 전부터 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면서 등록받지 않은 복수 상표를 사용해온 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보다 그의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출처 혼동 염려가 증가하였다면 유사 범위 내의 사용이다.

(3) 출처 혼동 염려 결부

양 상표가 유사할 여지가 있고, 상표가 원의 동일하므로 출처 혼동·혼동할 염려가 있다.

(4) 소결

甲은 乙의 상표를 알고 있는바, 고의로 인정표모로 복제 표본 모두 충족하여 취사유 있다.

3. 대상 표어

① 취사상표가 해석된 경우, 해당 등록상표를 장래로 인정한다. (법 제 1193항). ② 3년 이내 유사 범위 내에서



재출원이 금지된다. (특 제 74조 3항).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4]

I. 실문 (1) 4

1. 손해배상청구 예시 - 法 제 109조

손해 회복을 위하여 상표권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① 침해 ② 권리 또는 재산 ③ 손해 ④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침해 여부

(1) 상표 유사 여부

① 일반적으로 문자와 도형 결합 상표인 경우 문자에 의해 추정·판단되므로 兩 사용상표는 'KODELLY'라고 추정·인정될 것이다. ② 양 상표의 외관은 상이하나 한글이 'KODELLY'로 동일하므로 ③ 문자 상표인 경우 한글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고려할 때 ④ 양 상표는 출처 혼동 면려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2) 상표적 사용 여부

① 兩은 '팔죽 등'에 사용상표를 사용하였고 ③ 식별력이 있어 출처표시기능을 할 것이므로 상표적 사용하였다.

(3) 인정

따라서, 兩의 사용태양은 兩 상표권을 침해한다.

3. 과실이 추정 여부

뒤 사례에 따른 때. 침해행위¹에 대한 과실 추정².

4. 피해 발생 여부

(1) 피해 발생 ^{증상표 사용} 입증 여부 뒤 사례

특 제 110조 4항은 증명책임을 평가하는 규정인 볼.

피해의 발생을 추정하는 규정을 아니므로 상대적지.

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2) 사안 ^{증상표 사용사실}

특이 상품증후를 받은 후 국내에서 자신의 증후를
를 사용한 바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최종 결과

①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② 피해 발생 및 증상표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③ 가각심정이 예상됨.

II. 설문(2) 2.5

1. 증상표 사용의 의미

특 제 119조 1항 2호에서는 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것을 말한다.

2.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 관련 뒤 사례

(1) 지정상품 의미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지정상품과 사리동요상 동일한



상표를 말한다.

(2) 상표 관습에 나열한 경우

지정상품을 관습에 나열한 것에 불리하다면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사안

① Z은 자신이 발행한 카탈로그 뒷표지 공간에 'KODEN, KODI, IDIREA, KOKUDATA' 등 상표를 나열한 것에 불리하고 지정상품인 '필죽' 등 아무런 표시가 없어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따라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II 실용예 7

I 상표권자 등의 사용 여부

(1) 원칙 - 제117조 항 3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동등사용권자 등이 사용하였어야 한다.

(2) 제17조 누설 - 판매의 경우 누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상표권자가 표시한 그대로 국내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상표권자의 출처로서 인식되었다면, 이는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안

(1) 원치

상표권자 등이 사용하지 ~~않는~~ 바. 특정한 자정이 있다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2) 상표권자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이 것이 외국에서 표시한 상표 있는 상품 '강정'은 수입
하여 국내 유통되어 것이 출제해서 인식되었다면. 이는 것이
상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등록상표의 사용이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감하셨습니다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